

전주 '탄소 소재산업' 국가 전략사업 키운다

효성 첨단소재 전주공장 중심
탄소 소재 산단, 탄소산업 메카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정세균 총리 "정부 책임지고 지원"



24일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을 방문한 정세균 총리가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으로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효성 첨단소재 전주공장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탄소 산업 메카로 떠오른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탄소 산업 컨트롤타워 격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출범시키고 본격 지원에 나서면서 관련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덕진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진흥원은 탄소 소재 융복합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발전전략 이행과 로드맵 보완, 사업 기획·집행, 기술·서비스 실증 등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개원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송하진 전북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산업부 박진규 차관, 정은찬·김성주·김윤덕·안호영 국회의원,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원식 선포, 국가 탄소 융복합 발전전략 발표, 탄소 소재 융복합(미래형 도심 자동차) 수요창출 협력 공동선언과 효성 첨단소재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정세균 총리는 개원식에서 "세계 탄소 소재 시장규모는 앞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평균 성장률도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부품과 응용제품 시장까지 포함하면 그 성장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탄소 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탄소 소재는 미래 첨단산업의 쌀이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100년의

견인자"라며 "코로나19와 미·중 간의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 환경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소재와 부품, 장비의 생산기반을 자국 내에 확보하는 등 견고하고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래 첨단소재인 '탄소 소재'는 제품의 성능과 수명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더 키우는 소재로서 자동차와 항공기, 2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전북의 탄소 소재 산업을 지역 특화산

업을 뛰어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만들겠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 소재는 철보다 가볍지만, 강도는 10배나 강해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정부는 탄소 소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대일(對日) 무역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루고, 국가 차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탄소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탄소 복합재 상용화의 전진기지가 될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

단지 조성사업은 총 1770억원을 들여 2024년 마무리된다. 효성 첨단소재 전주공장 인근 65만 6000㎡(약 20만평)에 탄소 관련 70여 개 기업과 20여 개 연구개발(R&D) 시설, 20여 개 지원시설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전북 전주(탄소 소재)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 산업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이들 단지를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콜센터서 코로나 집단 감염...슈퍼전파 우려

1500 여명이 생활하는 건물
"근무자 전원 검사" 행정명령

광주에서 1500명이 근무하는 고객센터(콜센터) 건물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 건물에는 공기청정기 등 시설도 100명 넘게 근무하고 있으며, 구내 식당 등 건물 내 편의시설을 집단으로 이용하고 건물 밖에선 마스크를 내린 채 집단휴먼 등도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상 발현 후 1주일 뒤에야 검사를 받은 확진자가 있는가 하면 건물 내 고객센터에서는 교육행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슈퍼전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2·6면>

26일로 예정된 첫 백신접종을 준비하던 방역 당국은 갑자기 터진 집단감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24일, 광주 빛고을고객센터 건물 근무자들에게 25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7명이 추가되면서 이 건물에 입주한 라이나생명 관련 콜센터 직원 28명, 가족 2명, 접촉자 2명 등 모두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표 환자가 22일 나온 뒤 동료, 접촉자 검사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 4~12층에는 보험사 등의 콜센터가 밀집해 있다.

이 건물에는 광주 도시공사, 광주 트라우마센터, 감사원,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광주 발달

장애인훈련센터, 식당, 은행 등 시설과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상주 인원은 1419명, 현재 검사 인원은 881명이라고 방역 당국은 전했다.

특히 125명이 근무하는 4층 사무실에서 27명이 집단감염된 데 이어 5층 다른 사무실에서도 1명이 감염돼 확산이 우려된다. 지표 환자는 20일 증상을 보였지만, 다른 확진자는 그보다 앞선 17일 근육통 등 증상이 있는데도 23일야 검사 받았다. 건물 안에 있는 고객센터에서는 지난 18일 직원 교육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대규모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라이나생명측은 수도권 콜센터 집단 감염 이후 사무실에 아크릴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방역당국은 환기 등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직원들이 업무는 물론 휴식이나 식사를 함께하면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직원은 휴업을 위해 건물 밖 공간을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 내 다른 시설 근무자와의 접촉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도시공사 등은 현재 최소 비상근무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으며, 광주 시도 감사원 근무직원과 접촉한 직원을 파악하고 있다.

콜센터발 집단감염은 인근 전남으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관련 확진자 중 2명이 나주혁신도시 거주자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확진자는 가족이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정보센터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24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3명의 확진자(838번-840번)가 추가 발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출생아 <사망자> 첫 '데드 크로스'

지난해 -33000명...출산율 0.84명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구 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 3000명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01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을 넘겼으나 2017년(7만2000명)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2만8000명, 2019년 8000명 등으로 급속도로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30만2700명)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소 기록이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졌는데,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로 진입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은 5.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3.4%) 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5.9명으로 지난 2010년부터 11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명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년(0.92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1명 미만을 기록했다. 이는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 8개 특·광역시와 9개 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서울은 0.64명으로 모든 시도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연합뉴스

- 축구 스타 '성폭력 미투' 일파만파 ▶6면
- 타이거 우즈 차량 사고 선수생명 위기 ▶18면
- 신 팔도명물 - 9월 당기는 '목포의 맛'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 고함 새살이 생기면
잡아 주는 동안 2주만에!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평균) 2019.09.16~10.17 4주간(12주)간 임상연구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